

18세기 여성 염습의(殮襲衣)의 일례에 관한 고찰

-안동권씨(1664~1722)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송미경

경기도박물관 보존과학실 연구원

A Study on the Noble Lady's Costumes of 18 Centuries -excavated from Andong Gwon's(1664~1722) grave-

Mi-Kyung Song

Conservator, Kyounggi Provincial Museum Conservation Lab.
(2002. 6. 11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regarding on the shroud of *Jeonjoo Lee* (*Inpyoung* clan's lady) excavated from the *Andong Gwon's* grave. who had passed away at 1722. Through this research, we understood the way of fetal ceremony by 18 centuries' royal family, and the costume style in those days. The style and size of shrouds were likely similar with ordinary dress. For the upper dress, Lady *Andong Gwon* wore a piece of undershirt (*sosam*), 3 layed jacket (*Joggoli*), an upper jacket (*dangui*) with patched badge as well as a gold brocade formal dress (*wonsam*). And for the lower dress, 2 layed underpants (*dansokot*) and 2 layed long skirts were worn. Especially, prototype of the waist band for shroud (*gowdo*) and a kind of headgear (*gokdoli*) was found in this study along with the headdress for woman's shroud (*yomo*) and the shoes for woman's shroud (*chahwea*). In this study, understanding the costume of upper class at 18 centuries during Chosun Dynasty.

Key Words : The costume of upper class at 18 centuries during Chosun Dynasty(18세기 초반 왕실 중
친 여성복), fetal ceremony(상장례), shroud(염습의), noble lady's formal dress(여성예복)

I. 머리말

1999년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소재 전주이씨 인
평대군과 묘역을 이장하던 중 의원군(義原君) 이혁
(李懌)과 그의 부인 안동 권씨의 묘에서 복식류가

수습되었다. 안동 권씨의 복식은 18세기 전반의 여
성복식 일습(一襲)이 출토된 드문 사례로서, 생몰
년과 신분이 확실한 왕실중친의 복식을 체계적으
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안동 권씨(1664~1722)는 군수(郡守) 권택광(權

德廣)의 여식(女息)으로 현종 갑진년에 태어나 경종 2년 8월 27일에 58세로 졸(卒)하였다.¹⁾ 안동 권씨의 남편인 의원군 혁(赫 1661:현종 2~1722:경종 2)은 능창대군(宣祖 32, 1599~光海君 7 1615: 선조의 손자, 仁祖의 동생)의 양자인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손자이며, 정2품 종친(承憲大夫)으로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지냈다.

안동권씨의 생몰년대는 조선시대 가운데 예학(禮學)이 발달된 시기로서 상례(喪禮)는 예론에 의해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안동권씨의 부군인 의원군도 예론에 밝아 여러 권의 책을 편찬하였다.²⁾ 이 가운데 《사례찬설(四禮纂說)》은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여 이이(李珥)와 김장생(金長生)의 예론을 중심으로 실제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찾아 문답식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사례찬설》은 여성의 상례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많은 예서에서도 남자의 상례에 관해서는 자세히 기록과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자의 상례에 관한 기록은 드문 편이다.³⁾ 18세기에 편찬된 《사례편람》⁴⁾은 다른 예서와는 달리 여상(女喪)의 염습의(殮襲衣)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안동권씨의 생몰년과 동시대에 편찬된 《사례편람》을 참고로 하여 18세기 초반의 여성 염습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염습의

염습의란 상례(喪禮) 때 초종(初終)에서부터 습(襲)·소렴(小殮)·대렴(大斂)의 과정에서 시신을 싸는 옷과 도구를 말한다. 염습의는 옷과 여러 가지 도구로 나눌 수 있는데 옷은 염습의(殮襲衣)라고 하고, 염습에 사용되는 복식 외의 여러 가지를 염습제구(殮襲諸具)라고 한다.

《사례편람》에 기록된 여상의 습에 사용된 습구(襲具)로는 掩, 纈, 深衣 혹은 緣衣 혹은 圓衫 혹은 長褌子(속칭 長衣), 帶, 衫子, 袍褌(속칭 赤古里 三稱), 小衫, 裹肚(속칭 腰帶), 裳, 袴, 單袴, 綵鞋, 充耳, 幘目, 握手, 襪, 冒이다.⁵⁾

안동 권씨의 묘역에서는 염습의와 염습제구로 총 66점이 출토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염습의<표 1> 7종류 29점과, 염습제구<표 2> 19종류 37점이다. 이 유물들은 경기도박물관소장품이다.

<표 1> 안동권씨 염습의

명칭	점수	비고
소삼(적삼)	1점	홀옷
저고리	16점	겹, 솜, 누비
당의	1점	봉황홍배 부착
원삼	1점	'壽'字 직금선단, 帶 포함
장옷	2점	누비 2점
바지	3점	홀옷 1점, 솜 2점
치마	5점	홀 1점, 겹 1점, 솜 3점

<표 2> 안동 권씨 염습구

명칭	점수	비고
과두	1점	솜, 끈 2개 달림
편의	17점	솜넣은 사각주머니
옷감	3점	보공용 천 1점, 옷감 2점
여모	1점	조바위와 비슷한 형태
떡목	1점	매우 얇게 솜 넣음
대렴금	1점	솜과 저주지 넣음
소렴금	1점	"
악수	1쌍	매우 얇게 솜 듬
오냥	6점	먹글씨 써 있음
베개	1점	직금선단, 솜
지요	1점	얇게 솜 듬, 사다리꼴
천금	1점	겹, 직사각형
현훈	1쌍	옷감 전폭 사용
명정	1점	安東縣夫人權氏之柩라고 써 있음
구의	1점	黻襲과 雲襲 부착됨
습신	1쌍	신등에 꽃 솜 달림
버선	1쌍	얇게 솜 듬
족두리	1점	솜
과포	다수	일 부분 남아 있음

1. 습의(襲衣)

습(襲)이란 시신을 목욕 후에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는 절차를 말하며, 이 때 사용하는 옷을 습의(襲衣)라고 한다.

안동 권씨의 묘에서 수습된 습에 사용된 복식은 유물 14종 (적삼, 저고리, 당의, 원삼, 바지, 치마, 과두, 버선, 습신, 족두리, 떡목, 악수, 과두, 여모)이다. 복식류를 제외한 나머지 유물은 염습구(殮襲

具)로 분류하였다.

안동 권씨의 습의 가운데 상의는 속에서부터 ① 소삼(적삼) ② 연화문단 저고리 ③ 삼희장저고리 ④ 거들지 있는 연화문단 저고리 ⑤ 봉황 흉배가 부착된 당의 ⑥ 직금(織金) 원삼이다. 소삼~원삼까지 한꺼번에 깃과 고대, 양옆 견마기 옆선, 중심 부분이 굵은 실로 꿰매어져 있었다. 하의는 ① 훌바지 ② 솜바지 2벌이다. 훌바지와 솜바지 각 1벌은 바대와 부리를 실로 꿰맨 상태였다. 다른 솜바지 1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습의로 생각된다. 치마는 겹치마 1점과 긴치마 1점이 있다. 긴치마는 허리는 좁고, 길이는 길어 치마 위에 입은 의례용 옷치마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습의로 사용된 옷들은 상의와 하의 모두 속옷에서 겹옷 입는 순서로 솔기가 꿰어져 있어, 습(襲)당시에 한꺼번에 꺼 입힌다는 예서의 기록과 일치하였다.⁶⁾

그 외 과두(裹肚)·채혜(綵鞋)·떡목(幘目)·악수(握手)·버선, 족두리 등이 있다.

특히 습의는 18세기 초반의 속옷에서부터 평상복 그리고 예복의 형태·구성법·착장법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사례편람》의 여상(女喪)에는 포오(袍褙: 속칭 저고리 삼칭(赤古里 三稱)라고 하여, 습할 때 저고리 3벌을 꺼 입히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준하여 저고리 삼칭(삼작)의 구성과 착장 순서를 볼 수 있으며, 18세기 초반의 당의(唐衣)와 원삼(圓衫)의 실체를 밝혀 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2. 소렴의(小殮衣)

소렴이란, 시신을 습(襲)한 다음 옷과 이블로 감싸놓은 단계를 말한다. 이 때 사용된 옷을 소렴의(小殮衣)라고 한다.

안동 권씨의 소렴의로 분류된 유물은 저고리 3점, 치마 1점, 장옷 1점이다.

저고리 3점 가운데 두벌은 한꺼번에 팔이 끼어 있었으며, 그 속에 저고리 1점이 있었다. 제일 안쪽 저고리 안에 족두리와 여모(女帽)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저고리로 머리 부분을 감쌌음을 알 수 있다.

3. 대렴의(大斂衣)

대렴이란, 소렴을 한 후에 다시 시신을 옷과 이블로 싸고 입관을 하는 단계를 말하며, 이 때 사용된 의복을 대렴의(大斂衣)라고 한다.

안동 권씨의 대렴의는 장옷 1점, 치마 2점, 저고리 10점이다. 이 가운데 회장저고리 3점은 솜을 두었고 옷고름과 동정이 떼어져 있어 염습(殮襲)의 풍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3> 용도별로 본 안동권씨의 염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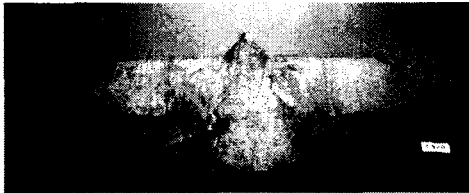
용도	명칭	점수	비고
습	소삼(적삼)	1점	소삼(적삼)~원삼까지 깃과 뒷중심, 옆선 등이 꿰매어져 있었음
	연화문단저고리	1점	
	연화문단삼희장저고리	1점	
	거들지 부착 저고리	1점	
	봉황흉배 부착 당의	1점	
	壽字 직금단 원삼	1점	훌바지 1점과 솜바지 1점은 꿰매어져 있었음. 솜바지 1점은 염의(殮衣)용도 일 가능성도 있음
	훌바지	1점	
	솜바지	2점	
겹치마	1점	솜치마	
훌치마	1점	허리 좁고 길이가 긴 치마	
소렴	저고리	3점	2점은 팔이 끼여 있었으며, 그 위로 다시 1점 있었음. 제일 속에 족두리와 여모(女帽) 있었음. 頭部를 싸는 용도로 사용됨
	치마	1점	솜치마
	장옷	1점	누비장옷
대렴	저고리	10점	3점은 회장저고리로 옷고름과 동정 떼어짐
	치마	2점	겹치마1점, 솜치마 1점
	장옷	1점	누비장옷

이상에서 살펴본 안동권씨의 염습의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Ⅲ. 안동권씨의 염습에 사용된 복식

1. 소삼(小衫, 적삼) <그림 1>

《사례편람》에는 ‘소삼(小衫)’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상(女喪)의 제일 속에 입는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적삼이라고 부르는 속옷으로, 형태는 안동 권씨의 저고리와 동일하며, 동정과 속고름이 없는 흘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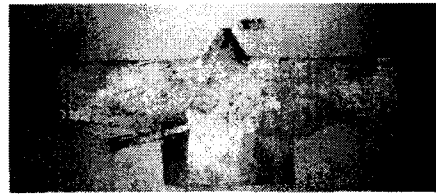
<그림 1> 소삼

2. 저고리(赤古里) <그림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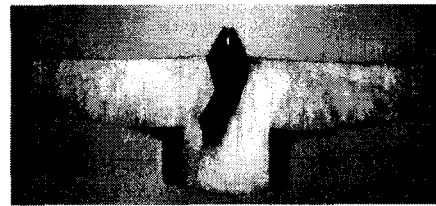
《사례편람》에는 포오(袍襖) 속칭 저고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동 권씨의 묘역에서는 총 16점의 저고리가 출토되었다. 이를 분류하면 저고리<그림 2> 8점, 회장저고리 6점<그림 3>, 삼회장저고리<그림 4> 1점, 거들지 달린 저고리 1점<그림 5>이다. 안동 권씨 저고리는 대부분 길이 40~45cm, 화장 70~74cm 정도이나, 유난히 치수가 작은 저고리도 2점이 있었다. 예복 저고리일수록 화장이 길어진다. 저고리도 1점을 제외하고, 같은 감 또는 다른 감으로 12cm내외의 끝동이 달려있다. 출토된 복식이어서 변색된 것을 고려하면, 정확한 의미의 민저고리는 1점이고, 나머지는 회장저고리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끝동의 색상은 변색되어 알 수 없으나, 연령군(延齡君)의 아들 낙천군(洛川君)부인 서씨의 삼회장저고리의 경우에는 옥색의 석류매화 문단이고, 끝동은 진옥색의 희(喜)자 여의주용문단인 것⁷⁾으로 보아, 안동 권씨 저고리의 길과 끝동의 색깔 또한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회장저고리는 깃에 다른 색상이 있는 것이 1점, 깃과 견마기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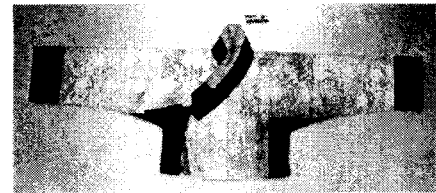
른 색상이 있는 것이 3점이나 이 가운데 2점은 옷고름이 떼어져서 없는 상태이며, 옷고름에 다른 색상의 옷감을 사용한 것이 1점, 옷깃과 옷고름에 유색 옷감을 사용한 것이 1점이 있다. 옷고름, 동정이 떼어진 저고리는 3점으로 모두 솜을 두둑이 넣은 회장 저고리로 1점은 누비로 대렴의 용도에 사용되었다.



<그림 2> 저고리



<그림 3> 회장저고리



<그림 4> 삼회장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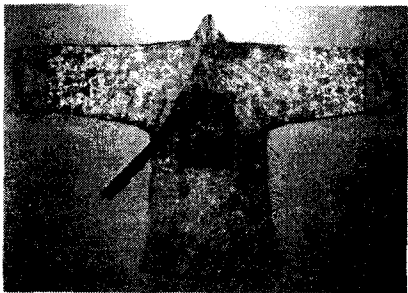
<그림 5> 거들지 달린 저고리

안동 권씨 저고리 형태의 공통점은 ① 깃모양은 당코깃이며 깃 궁둥이는 약 90° 정도의 각도이며,

전체적으로 깃을 얇힐 때 많이 굴렀다. ② 모두 솜을 넣었지만 몇 점을 제외하고는 매우 얇게 넣었으며, 솜을 고정시키기 위해 저고리 도련과 섶 주변 5cm 높이를 상침 하듯이 정겼다. ③ 안감 깃머리에는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 즉 깃을 겹감에 대고 1mm 홈질을 곱게 하였다. 깃머리에는 1~2mm 홈질 또는 박음질로 장식하였고, 동정이 달리는 부분은 5mm 간격의 홈질을 하였다. ④ 저고리 수구의 안쪽에서 나비 약 5cm~10cm 내외의 주(紬)로 덧단을 대었다. 이 덧단의 용도는 동정처럼, 수구 안쪽의 더러움을 방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3. 당의(唐衣) <그림 6>

《사례편람》에 “여상(女喪)의 습의(襲衣)로, 삼자(衫子)라고도 하며, 이 옷은 관례 때도 입으며 상의(上衣)에 받쳐 입혀진 옷으로, 속칭 당의(唐衣)라고 하며, 길이는 무릎 정도이고, 소매는 좁고 여자의 상복(常服)이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아 18세기 중엽에 당의는 여자의 상복(常服)으로 사용되었으며, 삼자(衫子)라고도 불리워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당의

안동 권씨 당의는 겹감은 포도와 다람쥐 무늬의 화문단을, 안감은 연주문의 룡(綾)을 사용하였고, 당코깃에 앞뒤에 금사 3올로 테두리를 두른 자수 봉황홍배가 달려 있으며, 소매 끝에는 저주지를 넣은 흰색 견(絹)으로 만든 거들지가 달려있다. 옷고름은 자주색으로 추정되는 짙은 색이다. 안동 권씨 당의는 길이 78cm 화장 83cm 고대 17cm 품 48cm이다. 안동 권씨의 당의는, 저고리 삼작 위에 입었고

당의 위에 원삼을 착용하여 18세기 초기 여성예복을 잘 보여 준다. 안동 권씨의 당의는 현재까지 보고된 출토복식 가운데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홍배가 달린 당의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4. 원삼(圓衫, 圓衫大帶) <그림 7>

원삼은 《사례편람》에는 “여상의 습의(襲衣) 가운데 하나로서 색깔 있는 견(絹)이나 주(紬)를 사용하여 만들며 제례 때의 대의(大衣)와 같다고 했는데 보통 넓은 당의(唐衣)의 모양과 같으며 길이는 무릎까지 오며 소매길이는 주척(周尺)으로 2척2촌이다. 일명 대수(大袖) 혹은 원삼이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7> 원삼

안동 권씨의 원삼은 당의 위에 입혀져 있어, 습의 가운데 최상의 예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삼은 원삼 대(帶)와 함께 출토되었고, 겹감과 대는 직금운용문단(織金雲龍紋緞), 안감은 보상화문주(寶相花紋紬), 겹감과 안감의 덧단은 보상화문단과 화문단을 사용하였다. 이 원삼은 겹감과 안감을 각각 바느질하여, 고대와 섶과 길 등의 가장자리를 실로 꿰맨 겹옷으로, 안감의 시접과 술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다. 앞길이가 128cm, 뒷길이가 141cm로 앞이 뒤보다 13cm 짧다. 여밈은 옷고름 3개로 여뒀으며, 여느 원삼과는 다르게 소매 끝에 색동은 달려 있지 않으며, 수구 끝에 안감과 동일한 16cm 폭의 소재 보상화문주 한삼이 달려있다. 원삼에는 대를 고정시키는 고리가 없으며, 원삼 대는 길이 332.5cm 폭 7cm이다. 이 원삼은 겹옷과 안옷이 독립되어 만들

어졌고, 안감의 시점이 겉에서 보이는 점은 부군인 의원군의 단령도 같은 구성법을 보여 18세기초 남녀 예복의 바느질법에 있어서 남녀복의 구성법도 동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동 권씨의 원삼은 현재까지 보고된 출토복식 가운데 제일 시대가 올라가는 원삼 유물로서 가치가 있으며, 이단하(李端夏:1649~1689) 부인의 원삼⁸⁾과 화순옹주(和順翁主: 영조 2女, 下嫁人 月城尉 金漢蕙 1720~1758)⁹⁾ 사이의 연대에 걸쳐 있어 원삼 형태와 바느질 연구에 자료가 된다.

5. 장옷(長衣) <그림 8>

장옷은 장의(長衣)라고 기록되지만 조선중기 언문으로 '당옷', 즉 '장옷'으로 표기되었다. 언문 표기대로 발음을 했다고 보면 현재의 음운으로는 '장옷'이 되므로 장옷[長衣]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¹⁰⁾ 《사례편람》의 여상(女喪)의 습구(襲具)에는 심의 혹 단의 혹 원삼 혹 장오자(속칭 장의)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 그 당시의 여자들의 예복 또는 상복(上服)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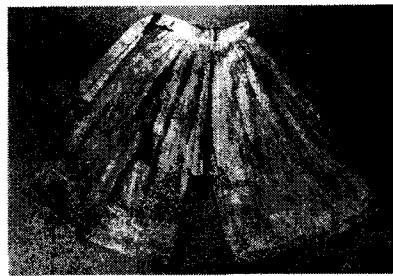


<그림 8> 장옷

안동 권씨의 장옷은 2점이 출토되었다. 2점 모두 누비 장옷으로 1점은 소렴에, 1점은 대렴에 사용되었다. 2점 모두 거들지, 동정, 옷고름 등이 달려 있는 완전한 형태이다. 출토복식 가운데 장옷이 나온 경우는 10회¹¹⁾인데, 안동 권씨의 장옷은 형태와 착용시기 등으로 보아, 여성의 포류(袍類)로 착용되었을 것 같다. .

6. 바지<그림 9>

바지는 3점이 출토되었다. 3점 모두 합당고(合襠袴)의 단속곳형태이며 옆 트임이 있고, 허리끈이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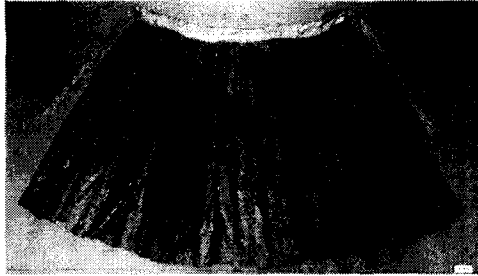
<그림 9> 바지

홀바지는 화문주(花紋紬)로 만들었고 제일 속에 입은 속옷의 역할을 한 바지이며, 그 위에 화문주 솜바지를 입었다. 홀바지와 솜바지 2점은 바대와 밑 부리 부분을 실로 징귀서 1벌처럼 꿰매어져 있었다. 습의 흔적으로 보아 입어서 오른편 트임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1점은 주(紬) 솜바지로 17cm 폭의 밑단을 덧대었다. 유물수습 상황으로 보아서는 3점 모두 습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나, 덧단을 붙인 바지의 용도는 확실하지는 않으며, 《사례편람》의 여자의 습구(襲具)¹²⁾에도 고(袴)와 단고(單袴)의 기록밖에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염의(襪衣)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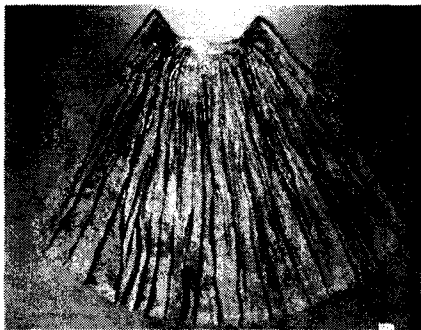
7. 치마<그림 10> <그림 11>

치마는 겹치마1점 솜치마 3점 홀치마 1점 모두 5점이 수습되었다. 습용으로 솜치마 1점, 홀치마 1점 소렴용에 솜치마 1점 그리고 대렴용에 겹치마 1점과 솜치마 1점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치마 2점은 실꼬리가 달려 있어, 새 옷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홀치마를 제외한 치마 4점은 허리둘레 82~95cm이며 길이는 95~98cm 내외, 치마 나비는 300~464cm이다. 솜치마는 모두 솜을 매우 얇게 두었다. 솜치마를 포함한 치마 4점 모두 아랫단에만 폭 2~



<그림 10> 겹치마



<그림 11> 훌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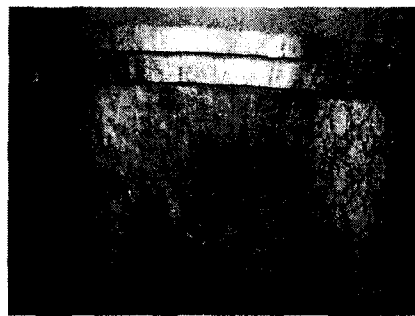
2.5cm 내외의 걸감으로 단을 덧대었다. 훌치마는 선단과 아랫단을 덧대어서 만들었으며 아랫단을 먼저 접고 그 위에 선단을 접은 후 공그르기를 하였다. 옷감은 문단류가 4점, 화문주 1점이다. 화문단 훌치마 1점은 치마허리 73cm, 길이 129cm 나비 464cm이며, 주름을 고정하기 위한 시침용 실로 추정되는 실의 흔적들이 부분적으로 있으며, 치수와 출토 상황으로 보아 예복용 옷치마로 생각된다.

IV. 안동권씨의 염습구(殮襲具)

안동 권씨의 염습구는 편의(片衣)로 사용된 주머니, 보공용 천, 악수(握手), 떡목(幘目), 오낭(五囊), 습신 1쌍, 여모(女帽), 과두(裹肚), 베개, 지요[地褌], 천금(天衾), 소렴금(小殮衾), 대렴금(大斂衾), 현훈(玄纁) 1쌍, 명정(銘旌), 구의(柩衣), 대렴포(大斂布)로 17종류 35점이다.

1. 과두 <그림 12>

과두(裹肚)는 습(襲)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시신의 배 부분을 싸는 네모난 끈이 달린 것이다. 《사례편람》에는 “과두는 배와 허리를 싸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주(紬)나 면포로 만들며 전폭(全幅)의 나비에 길이는 몸을 두를 정도인, 사각형이며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 있는데 여상(女喪)에서는 속칭 요대(腰帶)라고 하며 남자의 과두와 모양은 같지만 아래쪽 양각(兩角)에 끈이 없는 것이 다른 점이다.”¹³⁾라고 하여 요대라고 불렀으며, 그 당시 남녀의 과두는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과두

안동 권씨 과두는 걸감과 끈은 연화만초문주, 안감은 주로 만들어져있고, 속에는 솜이 들어 있다. 길이 33, 폭 102cm이며, 끈은 103×4.5cm로 윗 부분에 2개만 달려 있다. 끈이 윗 쪽 양각에만 달린 것으로 보아 《사례편람》에서 지적한 여자용 과두임이 확인되었다.

2. 편의(片衣)와 옷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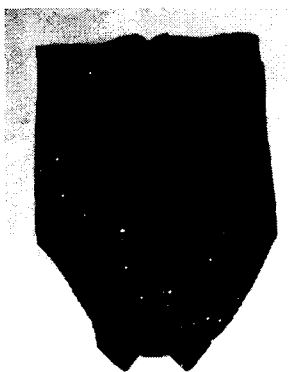
안동 권씨의 묘역에서는 보공용 천 1점, 옷감 2점, 주머니 17점이 출토되었다.

주머니형태는 소렴과 대렴 때 시신을 네모 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던 편의(片衣)라고 생각된다. 주머니의 치수는 매우 다양하며, 주로 만든 사각형 베개 모양의 속에는 솜이 들어 있었다. 편의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다른 묘역에서 옷감을 표

아서 넣기도 하며, 안동 권씨 유물 가운데도 꼬인 옷감이 있다. 주머니형 편의 가운데 2점은 소렴용 치마 속에서 나왔으며, 4점은 과두 아래에서 나왔다. 숨을 둔 사각형의 배개와 같은 유물은 최근 출토된 전주이씨 익정 보고서¹⁴⁾에도 보고된 바가 있다.

3. 여모(女帽) <그림 13>

여모(女帽)란 여상(女喪) 때 시신의 머리부위를 가리는 것이다. 공단으로 얼굴을 감싸는 형태를 만들었지만 모정(帽頂)은 뚫려 있다. 뚫린 모정 위에 족두리를 얹어 염습을 하였던 것 같다. 안에서 짙은색 보상화문주로 높이 4.5cm 폭 30cm로 뒷받침이 있고, 그 위에 같은 소재로 제비부리 모양의 땡기(길이 27cm, 폭 6.5cm)를 만들어 붙였다. 정면에서 보면 얼굴 전체를 감쌀 수 있게 둥근 모양이며, 12cm정도 접친다. 속에는 숨을 얇게 두었고, 뒷받침은 형태를 잡기 위해 저주지를 넣어 딱딱하게 만들었다. 이 여모는 얼굴 가리개를 짓히고 측면에서 보면 조바위 형태와 비슷하다.



<그림 13> 여모(정면)

4. 멩목(幘目)

시신의 얼굴을 덮는 것으로 《사상례》에는 검은 색이며 안은 붉은색의 주름 사용하여 속에 숨을 넣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안동 권씨의 멩목은 겉은 공단, 안은 연화문단으로 겉·안감의 색이 다르며,

치수는 가로 25cm, 세로 24cm이며 네 귀퉁이에 1×4cm의 공단으로 만든 끈이 달려있다.

5. 대렴금(大斂衾)과 소렴금(小斂衾)

대렴에 사용된 이불로 이불 등은 길이 3폭을 연결하여 만들었고, 그 위에 이불깃이 있으며, 이불깃 위에 주로 된 동정이 있다. 겉감에는 대렴포 조각인 삼배가 붙어 있다. 대렴의 흔적으로 인하여 이불을 펼쳐 놓았을 때는 양쪽 가장자리의 색상이 더 짙다. 겉감 쪽에는 관 길이 정도에 해당되는 곳에 숯가루의 흔적이 있었다. 이 이불은 대렴을 위하여 제작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왜냐하면 시신이 놓이는 중심 부분에는 매우 얇게 숨을 두었고, 그 외 부분에는 저주지를 얇게 깔았다. 소렴금은 대렴금과 구성 및 치수가 거의 같다.

6. 악수(握手)

악수란, 시신의 손을 싸는 것이다. 안동 권씨의 악수 1쌍은 겉은 무문단이고 안은 연화만초문단으로, 색상이 다르다. 겉감이 검은색이고, 안감이 붉은 색으로 추측된다.

7. 오낭(五囊)

대렴 때 사용되는 작은 5개의 주머니를 말한다. 평상시, 또는 시신을 목욕 시킬 때 떨어지는 치아·머리카락·손톱·발톱 등을 넣는 작은 주머니로 대렴 때 관 속에 넣는다. 안동 권씨의 오낭은 6개 모두 수습되었다. 작은 주머니 5개에는 각각 정갈한 먹글씨로 “右手·左手·落齒·右足·左足”이라 써있으며, 크기가 다른 것에 비해 큰 주머니 1개에는 글씨는 없지만 낙발낭(落髮囊)이 아닌가 추측된다. 주머니 입구는 끈사 1가닥으로 가늘게 실을 꿰어서 잡아당기게 되어 있으며, 가운데 큰 주름을 1개를 잡고, 양옆에서 주름을 접어 전체모양은 귀주머니형태이다.

8. 베개

염습과정에 사용되는 베개로서, 길이 11.7cm, 나비 27cm의 직금화문단(織金花紋緞)으로 만들었다. 속에는 약 0.5~1cm 가량의 솜이 들어있다. 길이 36~38cm의 직사각형 옷감을 반으로 접어 뒤에서 공그르기를 하였다. 뒷면 중앙에 시접이 있다.

9. 지요(地褙)

지요란 관내 칠성판 위에 까는 자리를 말한다. 문단에 솜을 매우 얇게 둔 사다리꼴이다. 운보문(雲寶紋)과 운용문(雲龍紋)단을 안팎을 사용하였다. 윗 부분 45cm, 아래 부분 37.5cm 길이 183cm의 관의 모양과 같은 사다리꼴 모양이다.

10. 천금(天衾)

천금이란, 대렴 후 맨 위에 덮는 이불이다. 지요와 마찬가지로 겹·안감 색깔을 다르게 사용을 한다. 안동 권씨의 천금은 겹감은 포도나무에 다람쥐 문양이 있는 화문단, 안감은 연화문단이다. 안동 권씨의 천금은 지요와 다르게 위아래 나비는 같다. 나비 59cm, 길이 171cm이다. 위에서부터 약 17.5cm 길이의 창구멍의 흔적이 있다.

11. 현훈(玄纁)

현훈이란 산신에게 폐백으로 드리는 검은색 비단과 붉은색 비단을 말한다.

안동 권씨의 현훈은 공단 전폭을 접은 위에 주실로 동심결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현의 동심결은 끊어진 상태이다. 현은 65cm 전폭의 짙은 색 공단을 사용하였고 나비는 15cm로 양쪽에서부터 7~8번 접어 총길이가 225cm이다. 훈은 붉은 색 공단으로 69cm 공단 전폭을 사용했고, 양쪽에서 약 12cm 나비로 7~9번 접어 들어가 중앙에서 만나 총길이는 196cm이다. 그런 후 다시 옷감 폭의 양끝에서 22cm를 접어 넣어 완성시켰다.

12. 명정(銘旌)

명정(銘旌)은 붉은색 옷감에 죽은 사람의 품계·관직·성명을 쓴 것이다. 붉은 빛이 남아 있는 고운 주에 검은색으로 “安東縣夫人權氏之柩”라고 써있다. 《사례편람》에 “《가례》 <본주>의 예를 들어 삼품(三品) 이상은 아홉자, 《상례비요》에서 인용하여 붉은 비단 전폭에 관직과 봉호를 옷감 폭 가운데 해서(楷書)로 크게 쓴다. 부인은 명정식(銘旌式)은 ‘○封○○貫○氏之柩’라고 쓴다. 2품 종친의 처는 현부인(縣夫人)이다.” 안동 권씨의 남편인 의원군의 명정은 “承憲大夫義原君兼五衛都總管之柩”라고 쓰였다. 이것으로 보아 안동 권씨의 명정은 예서에서 지적하는 종친 2품의 남편 품계에 따른 명정식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유물들이 ‘貞夫人○○氏之柩’라고 쓴 것¹⁵⁾에 비해, 안동 권씨의 명정은 “安東縣夫人權氏之柩”라고 써 있다. 61cm 주(紬) 한 폭에 197cm 길이이다.

13. 구의(柩衣) <그림 14>

구의란, 《사례편람》에는 시신을 덮는 이불로, 소렴 때 쓰는 것으로 네 모서리를 잘라 꿰매어 관에 맞도록 만들어 마치 작은 장막(斗帳) 같고, 여유 있게 만든다고 하였다. 염습이 끝난 뒤 시신을 덮어놓을 때 사용되거나, 하관을 할 때 관 위를 덮는 것이다. 《사례편람》의 구의도(柩衣圖)를 보면 관의 모양처럼 생긴 것이다.



<그림 14> 구의

안동 권씨의 구의는 검정색 공단 93cm와 붉은 색 공단 94.5cm를 이어서 길이를 만든 후, 네 모서리를 꿰매어 관에 맞게 만든 것으로 크기는 너비 상 54cm 하 49cm 길이 187.5cm, 깊이 상 51cm 하 46.5cm이다. 바느질법은 구의의 중앙과 네 모서리를 매우 고운 감침질을 하였고 솔기는 가름솔이며, 아랫단을 1.3cm 제단을 접어 넣었다. 구의 양옆에 2겹의 사(紗) 위에 채색으로 그림을 그린 불삽(敝囊)과 운삽(雲襲)이 각각 2개씩 꿰 매져있었을 것이나 그중 우측면의 운삽 하나는 유실된 상태이다. 구의에 사용된 옷감은 안동 권씨의 현훈에 사용된 옷감과 동일하며, 구의의 글씨는 명정에 쓰인 글씨와 동일한 '安東縣夫人權氏之柩'라고 써있다.

14. 습신(彩鞋)

시신에 신기는 신발이다. 《四禮便覽》의 여상(女喪)에는 채혜(彩鞋)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동 권씨의 신발은 겹갈이 있는 문양이 있는 짙은 색의 비단을 사용하였으며, 바닥과 신율은 거친 무명을 이용하여 심을 만들어 그 위에 굵은 실로 누벼 신 형태를 잡았으며, 고운 주를 덮어 안감으로 마감하였다. 신발의 테두리에는 끈사로 수를 놓아 문양처럼 장식 선이 있고, 신발 코에는 비단실로 둥근 고리 같은 꽃술을 달았으나, 현재는 신발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왼쪽 신발에는 꽃술이 분실되었다. 길이 26cm, 높이 6cm, 신발 폭9cm이다.

15. 버선

발길이 24cm 회목 15cm 버선목 16.5cm 전체길이 28cm의 솜을 얇게 둔 무명 겹버선이다. 이 버선의 형태는 현대 버선보다 각이 졌지만, 만드는 방법은 현대 버선과 같다. 버선목 있는 곳에 6cm의 안단을 대었는데 실은 짙은 색을 사용하여 감침질을 하였다. 버선목에서 약 2.5cm 내려 온 곳부터 15cm 가량 창구멍을 두었다. 창구멍 부분은 5mm 간격으로 옷감 위에 3겹 홈질을 하였고, 그 외 부분은 4겹 바느질을 하였고 창구멍으로 뒤집은 후 다시 공그르기를 하여 창구멍을 막았다. 이 유물을 통해 보면 현

대와 같은 버선 바느질법은 적어도 18세기 초 중엽에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16. 족두리(No.12) <그림 15>

측면에서 보면 마치 현대의 베레처럼 보이는 이 유물은 짙은 갈색 공단으로 크기가 다른 7조각의 사다리꼴을 이어 붙여 모양을 만들었고 정수리에 지름 7cm의 원형을 붙여만든 지름 19cm, 높이 7~8cm인 족두리의 전신(前身)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말기부터 현대까지 전해오는 족두리 가운데, 7쪽을 이어 붙이고 모정에는 원형(圓形)으로 마감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 족두리의 원형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공단 안에 저주지를 넣어 모양을 잡았고, 그 위에 솜을 두었지만 솜의 분량은 딱 채워져 있지는 않다. 가장 자리에는 시접 8mm로 밑단을 접어 홈질로 마감하였다. 안감이 있었던 바느질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바느질이라든지 끈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염습용으로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족두리와 함께 출토된 여모(女帽)의 모정(瑠頂)이 뚫려져 있는데 그 위에 족두리를 얹으면, 넉넉하게 앉히는 정도이다.



<그림 15> 족두리

이 같은 족두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중앙일보사 풍속화 회혼례도(16)에 있다. 이 그림은 시대와 작가 미상이지만 저고리 길이로 보아 본 유물보다 조금 시대가 내려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에서도 주인공 부부 가운데 여자 주인공 혼자 별다른 장식이 없는 크기가 큼직한 검정색 족두리를 착용하였다. 같은 그림에 보이는 상을 받고 있는 다른

여자들은 뒷모습이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작은 족두리 같은 것을 착용한 듯 싶으며, 그 위에 꽃을 장식한 여자들도 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유물로는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변유인(1566~1641)의 부인 구례손씨(1576~1626 추정)의 소모자 4점이 있다. 그 가운데 3점의 형태가 안동 권씨 족두리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치수는 구례 손씨 것은 직경이 28~30cm로 성인여자가 쓰는 모자의 치수와 비슷하여 모자로 추정된다. “이들은 실용적인 면으로 방한모였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조각조각 이어 붙인 소모자는 영조시대 이후의 정례(定例)가 된 족두리의 원형이 될 가능성도 있다.”¹⁷⁾고 김동욱은 밝혔다.

17. 교포(絞布)

교포란, 소렴과 대렴 시에 소렴금과 대렴금을 싸는 옷감을 말한다. 안동 권씨 교포는 전체 염습제구에 비해 일부분만 수습되었다. 의원군 일가의 묘역에서 유난히 무명·모시·삼베와 같은 식물성섬유들의 손상이 눈에 띄었다. 종교(從絞)·횡교(橫絞) 전체 분량은 많았을 것이나, 일부만 수습되었다. 윤기 나는 삼베로 총길이 160cm, 나비 25cm 가량 남아있다.

V. 맺음말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소재 전주이씨 인평대군의 손자 의원군(義原君)의 부인 안동 권씨(1664~1722)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은 66점이다. 이를 염습의와 염습제구로 나누면, 염습의는 소삼(적삼)·저고리·당의·원삼·장옷·바지·치마이며, 염습제구는 편 의(片衣)로 사용된 주머니, 보공용 천·약수(握手)·떡목(楸目)·오낭(五囊)·버선, 족두리, 습신·여모(女帽)·과두(裹肚)·베개·지요[地褥]·천금(天錢)·소렴금(小殮金)·대렴금(大斂金)·교포(絞布)·현훈(玄纁)·명정(銘旌)·구의(柩衣)이다.

1. 안동권씨의 염습의는 18세기 전기의 여상(女喪)의 염습상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동시대의 예서인 《사례편람》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였다. 습과 소렴·대렴에 사용된 복식들은 모두 동일한 형태와 치수였으며, 대렴에 사용된 저고리 3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정과 옷고름이 달려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안동권씨의 염습의는 평상시의 옷을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2. 신분과 생몰년이 확실하여 18세기 초반 당시의 왕실 종친의 여성 복식을 알 수 있었다. 적삼부터 저고리 삼칭, 당의, 원삼에 이르는 여성 예복 염습이 밝혀졌다. 당의와 원삼은 출토 복식 가운데 시대가 가장 올라가는 유물로 절대연대 측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3. 당의에는 봉황흉배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직금(織金) 원삼에는 흉배가 부착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봉황흉배는 왕실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동 권씨는 종친 2품 외명부로서의 신분으로 봉황흉배를 착용한 것인지는 연구과제이다.

4. 원삼의 바느질법은 겉옷과 속옷을 따로 제작하여 2벌을 함께 앞길과 도련 등에서 돌아가며 시침질을 하여 착용하였으므로, 원삼 속옷의 시침 솔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다. 원삼 수구 끝에는 끝동은 없으나, 한삼은 달려 있다.

5. 18세기 여성 속옷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상의에 해당되는 속옷으로 문헌에 소삼(小衫)이라 불리는 적삼은 홀로 만든 저고리형태와 같으며, 겉고름은 있지만 동정과 속고름은 없는 형태다. 안동 권씨의 부군인 의원군의 적삼 수구 끝에는 손을 가릴 수 있는 한삼이 달려있지만, 안동 권씨의 소삼에는 한삼이 없었다. 이는 여성의 최고 예복인 원삼 끝에 달려 있는 한삼으로 손을 가릴 수 있는 기능을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

하의(下衣)인 속바지는 모두 합당고형의 단속곳과 같은 형태만 출토되었다. 제일 안에 입은 속옷은 홀로 만들고 허리끈도 모두 있는, 단속곳과 같은 형태이다.

면으로 만든 겹버선은 현대의 겹버선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다.

6. 족두리의 전신인 듯한 모자(帽子) 종류가 출

토되었다. 장식과 끈이 없으며, 바느질 상태로 보아 상례용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18세기 말 회화에서 보이는 족두리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7. 옷감의 직선을 바느질 할 때는 끈을 제외하고는 가윗밥을 넣어 옷감이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였다.

8. 염습구(殮襲具)도 남자의 상(喪)과 다르게 여상(女喪)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모(女帽)·과두(裹肚)·채혜(綵鞋) 등의 형태가 부군인 의원군의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 여성 예복 일습(一襲)은 안동권씨의 물년인 1722년경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염습의 또한 평상시에 착용하였던 복식과 동일한 형태와 치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도 18세기 여성복식의 자료는 계속 출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미비점이나 잘못된 점들은 후일 보완하고자 한다.

년(1844)에 그의 증손인 李光正에 의해 간행되었고, 그 뒤에 1900년 增補四禮便覽, 1929년 懸吐註解 四禮便覽으로 발간됨.

- 5) 李緯, 《四禮便覽》卷之三, 喪, 七 八.
- 6) 위글, 卷之三, 喪, 九.
- 7) 유송옥,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수학사, 1988, p.363.
- 8) 《중요민속자료 복식보존처리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4, pp.78~85.
- 9) 《복식류 명품도록》, 고려대학교 박물관, 1990, pp.63~64, 234~235.
- 10) 이은주, 《포항 내단리 장기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0, p.38.
- 11) 박진영, 〈조선시대 복식유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p.50.
- 12) 李緯, 《四禮便覽》, 卷之三 喪, 十.
- 13) 위글, 卷之三 喪, 九.
- 14) 《韓國服飾》 제19호,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 2001, p.148.
- 15) 《韓國服飾》 13호,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1995, p.52.
- 16) 《풍속화》, 중앙일보사, 1994, p.94.
- 17) 김동옥, 《백제의 복식》, 〈제 3부 임남전후의 출토복식〉, 백제문화개발연구소, 1985, pp.173~174.

참고문헌

- 1) 《瓊源續譜》〈福寧君係〉 p.5
안동권씨의 생년(生年)과 기일은 기록되어 있지만 물년(沒年)의 기록은 없다. 일반적인 족보 생몰년 기록은 남편의 물년과 같으면, 물년을 생략하고 기일만 기록한다고 한다. 안동권씨의 시조모인 인평대군 부인의 경우는 생년월일과 물년월일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 시모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기일만 적혀있다. 동서인 양원군(陽原君) 부인의 경우와, 며느리인 안흥군(安興君) 부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물년월일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동권씨의 물년은 부군인 의원군과 같은 해(景宗 壬寅年, 1722)로 추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이후 안동권씨의 물년은 1722년으로 표기하며, 이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수정하려고 한다.
- 2) 《오례집설(五禮集說)》 《사례찬설(四禮纂說)》 《시제제례(時祭祭禮)》 《열성세기요람(列星世紀要覽)》 《역대군신록(歷代君臣錄)》 등이 있다.
- 3) 송미경, 〈염습의(殮襲衣)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p.4~15.
- 4) 李緯(1680~1746)가 편찬한 사례에 관한 책. 憲宗 10